

## 태양 가득한 양양해변 젊음의 열기로 용솨음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이정철

태양 가득한 양양해변  
젊음의 열기로 용솨음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는  
피서철을 맞아 양양해변은  
젊음의 열기로 가득하다.

하얀 포말이 넘실거리며  
해변 추억이 떠오르는 곳  
명사십리 백사장 양양해변.

무더운 올 여름 피서는  
젊음의 열기와 이벤트가  
가득한 양양해변으로 오세요.

지 면 안 내

- 2면 중국 상하이간 정기노선 가능성 커
- 5면 "군민화합 · 지역발전 염원 한목소리"

- 3면 우리군 전국 디자인전 개최
- 6면 우리군 현안사업 관리개선 추진

- 4면 양양군-서울 송파구 자매결연 체결
- 7·8면 양양 수산항 요트거점 역할 특목

우리군 '물류혁명의 거점지'로 도약

# 중국 상하이간 정기노선 가능성 커

## 양양국제공항 3일 하얼빈 시작 국제선 재개

### 최문순 도지사 상하이 노선 2015년까지 연장 협약



양양국제공항이 지난 3일 중국 하얼빈 노선 재개를 시작으로 국제선 전세기 운항에 들어간 가운데, 상하이 노선이 2015년 3월까지 운항될 예정이어서 정기노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이날 오후 6시 중국 하얼빈을 출발한 남방항공 여객기는 중국인 승객 151명을 태우고 오후 9시35분 양양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도내 및 서울 관광을 마치고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돌아갔다. 하얼빈 노선은 오는 12월까지 매주 월요일 운항하며 총 31회 62편이 뜰 예정이다.

이어 중국 다롄 노선도 10일부터 운항 재개에 들어가 10월 18일까지 매주 월·수·금요일 3회 운항하며 57회에 걸쳐 114편이 오간다.

특히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활성화를 가능할 중국 상하이 노선은 오는 22일부터 운항 개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최근 중국을 방문 중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중국 최대 여행사로 꼽히는 씨트랩 여행을 찾아 운항 기간을 2015년 3월 31일까

지 연장하기로 협약해 정기노선 발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도는 지난 4일 최문순 지사가 씨트랩 여행을 방문해 오는 22일부터 재개되는 양양~상하이 노선의 운항 기간을 2015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데 합의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최대 상업도시인 상하이 노선이 2년간 중단없이 정기적으로 운항됨에 따라 국제선 정기노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활성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제선이 2년간 정기운항 되는 것은 개항 이래 처음이다.

여기에 강원도가 올부터 중국 상하이 노선에 25석의 국내관광객 좌석을 배정받아 교차관광이 가능해지면서 안착될 경우,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수효과에 더해 정기노선 확대 운항도 기대되고 있다. 상하이 노선은 매주 수·토요일 두 차례 왕복 운항하며 지난 운항기간 동안의 탑승률도 81.2%를 기록하고 있어 안정적인 운항이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 상하이 노선을 운항하는 주관 여행사인 씨트랩이 강원도에 대형 쇼핑센터 건립에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어 투자가 성사되면 이 노선의 장기 운항도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도는 베이징과 광저우 등 중국 최대 관광지와의 노선 개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군과 강원도는 중국인 관광객 체류 및 편의제공 등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중국 전세기 재개에 따라 지난 4일부터 문화복지회관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환영공연을 매주 개최해 우리군과 강원도의 관광매력을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로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과 내국인들이 양양국제공항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루 2회 속초에서 강릉을 운행하는 시외버스가 양양공항을 경유하도록 해 교통편의를 크게 높였다.

도 관계자는 "양양국제공항이 중국 노선 운항 재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성화에 들어가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된다"며 "중국 상하이 노선의 정기노선 가능성도 커진 만큼 중국인 관광객 수를 크게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 의 정 소 식

## 오색케이블카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기간 연장

### 제190회 임시회 개최...“오색케이블카 선정 최선”



우리군의회의 김일수 의장 주재로 6월 24일 제19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6월말로 종료되는 오색케이블카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김일수 의장은 “우리 양양군은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희망찬 양양’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자연과의 공존을 중시하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군민의 염원이 구체화되고 가시화하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왔다”며 “녹색혁명의

선두사업인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지 선정

에 있어 군민들의 최대 숙원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올해 안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 6월 26일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54차 강원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의장단에 강원도민의 뜻을 함께 모아 주기를 적극 당부했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 지역여성들 취업알선 가교역할

### 우리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활발

지난 5월2일 개소한 우리군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여성들의 신규 취업 가교역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군 지역에서는 최초로 개소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원 2명, 취업설계사 5명이 근무하며 여성 인적자원 발굴과 개발을 통해 지역여성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내고 있다.

군은 올해 2억7,600만원을 투입해 취업설계사를 통한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여성인턴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서비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집단 상담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으로 행정사무보조원 양성과정은 지난 5월 27일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2일까지 2개월 동안 문화복지회관 전산실에서 행정업무에 필요한 한글, 파워포인트, 엑

셀 기초 및 실무 등 컴퓨터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한식·양식조리기능사 자격 취득과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양양군 여성회관 1층 조리실습실에서 9주간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한식조리부분에 10명, 양식조리부분에 10명을 모집한다.

특히 일자리가 필요한 여성을 위한 그룹상담 프로그램을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5일씩 10기에 걸쳐 실시하며 첫 운영에 들어간 현재 주요 사업장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취업알선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지역 여성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재미 여성가족담당은 “지역여성의 능력을 개발해 효율적인 일자리를 알선하고 여성들에게 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 670-2357

## 양양 서면파출소 신설 확정

### 7월부터 본격 운영...관광지 치안불안 해소

서면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해온 서면파출소 신설이 확정돼 치안불안과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치안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이성현 경찰청장이 강원지방경찰청을 초도 순시한 자리에서 양양 서면파출소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로 속초경찰서 서면파출소 신설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 치안센터 건물은 이달 한 달간 시설정비를 통해 그대로 활용하고 8명의 경찰관

을 배치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면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동안 양양읍에 위치한 양양지구대에서 오색약수터까지 25분 이상 소요되는 출동시간 지연과 순찰 감소로 인한 범죄대응력 약화 등 주민들의 치안불안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서면지역은 최근 송천리 떡마을과 서리리, 황이리, 갈천리 등 정보화마을과 산촌생태마을이 형성돼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어 이에 따른 맞춤형 치

안도 확보돼 관광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된다.

탁상기 서면번영회장은 “주민들의 지팡이로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에서 주민들의 건의를 적극 수용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안전한 마을에서 보다 편안한 관광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더욱 가깝나가겠다”고 고마워했다.

한편 서면은 관내 전체 면적의 42.6%를 차지할 정도로 넓고 설악산 국립공원, 미천골 자연휴양림 등 산촌관광지가 크게 발달해 관광성수기 여행성 범죄가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치안센터로 격하돼 치안사각지대로 꼽혀 왔었다.

현안사업 계도에 오른다

# 우리군 전국 디자인전 개최

## 8월까지 작가 100명 엄선...문화·관광이미지 홍보

우리군이 새로운 아이콘 개발을 통해 신선한 지역이미지 알리기를 위해 문화·관광이미지 디자인전 개최를 추진한다.

군은 최근 시각적 이미지와 디자인으로 지역정보를 전달하는 추세가 뚜렷해짐에 따라 예향의 고장인 양양의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조명하고, 문화·축제의 고장으로써 아이콘을 개발해 적용하고자 문화·관광이미지 디자인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양의 문화와 관광을 주제로 5천만원을 투입해 사단법인 한국현대 디자인 작가 협회를 통해 80점~100점의 작품을 창작, 올해 열리는 송이축제와 연어축제기간에 전시하고 서울을 비롯해 관내 주요 관광지에도 전시할 예정이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중 한국

현대디자인작가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오는 8월까지 회원 중 참가의향이 있는 작가와 국내 주요 대학 디자인학부 교수들, 유명디자이너 등으로 참여 작가 100여명을 엄선하는 한편, 작품창작에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내 주요 문화, 관광지를 탐방한 뒤 문화원을 통해 양양군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특강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한국 현대디자인 작가협회(KECD)는 250여명의 가입회원을 통해 그래픽 디자인의 연구와 디자인 발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은 작가별 1점의 작품을 무상 기증 받아 관광자원화하는 한편 전시작품을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문화·관광의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29일 한국 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캐릭터 상품개발 공모사업에 양양군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2억여원을 투입해 문구류와 생활용품 등 17개 품목 74종을 제작할 예정이다. 이번엔 추진하는 디자인전과의 연계도 가능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다.

박상민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디자인전을 통해 문화관광 1번지로서의 양양의 가치를 알리고 작품의 순회전시를 통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해 양양군의 인지도와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오색케이블카 연내 반드시 선정하라”

## 오색케이블카 유치추진위원회 촉구 결의문 채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색케이블카 유치추진위원회(공동대표 김현수·김관호·임용식)는 지난 6일 결의문을 내고 정부의 선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이날 결의문에서 “우리 양양군민은 10년 이상을 지속돼온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의 능장 행정은 더 이상 국민행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볼 수 없기에 조속히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선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자연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보전하는 것이며 그 주체는 바로 양양군민들이다”며 “혁신과 창조는 큰 곳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작은 정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성공적일 수 있으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이고 창조적인 행위”라고 피력했다.

특히 “망설이는 호랑이는 별만도 못하다는 격언처럼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을 가진 우리 양양군민은 설악의 자존심으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올해 안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일체의 망설임도 없는 희생을 다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김현수 공동대표는 “우리 양양군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추진해오고 있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연내 반드시 선정돼야 하는 숙명을 지니고 있다”며 “그동안의 수많은 군민들의 땀과 노력이 배인 만큼 정부가 조속히 선정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하조대 희망들’ 대체부지로 일단락

## 주민간담회서 의견 접근...주민들, 해변 운영 지원 등 10가지 요구안 제시

서울시와 곧 MOU 체결할 듯

우리군과 서울시가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하조대 희망들(장애인재활센터)’ 조성사업이 대체부지로 옮겨가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그동안의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우리군과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현북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중광정리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주민요구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기존부지인 현북면 하광정리 596-1번지에서 해변을 따라 300m 떨어진 중광정리 500-1번지 군유지로 대체부지를 마련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중광정리 주민들은 △중광정리 해변 운영에 따른 행정봉사실 건립 및 부대시설 확충과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 신축 △

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공동농기계 구입 △전체부지 매입 및 잔여부지 매입 후 중광정리에 임대 △협력기금 매년 1,000만원 지원 △하조대 지구 오페수처리시설 설치 △해변 철조망 철거비용 부담 △서울시 홈페이지에 양양군과 중광정리 해변 홍보 내용 게재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도는 이날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한우 50마리 지원은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장애인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하고, 10억원 상당의 마을발전 기금 지원은 협력기금 1,000만원 지원으로 대체하는 대신 중광정리를 포함한 하조대 관광 활성화를 신규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국비를 포함한 도·군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혀 의견접근을 이끌어냈다.

이번 주민간담회는 앞선 지난 2일 서울시와 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광정리 주민들과 가진 협의에

서 제시된 안전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양양군이 세부논의를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중광정리 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시와의 협의에서 제시된 요구사항 중 현실성이 낮은 사안에 대해 양보하며 지역전체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대응적 자세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이번에 조정된 주민요구사항을 조만간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도 조만간 박원순 시장이 현북면 중광정리를 찾아 현장을 확인한 뒤 현북면(중광정리)과 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건립하려는 장애인수련시설은 숙박시설이 아닌 재활센터로 자연공원법상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취지로 상고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기로 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 670-2725

# 100년 전 토지경계 디지털 작업 추진

## 우리군, 주민설명회 갖고 바른 땅 사업 본격 시작

우리군이 이달부터 100년 만에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리한다는 의미의 바른 땅(지적 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군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 경계의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군의 지적 불부합지를 정리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지난 3월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도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화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지역인 양양읍 내곡리와 현남면 남애리에 대해 종이 지적(地籍)을 3차원 입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설명회를 본격 추진한다.

군은 지난 100년간 일제 강점기 당시 동경원점으로 측량된 종이로 제작된 도면이 시간이 지나 갈수록 사용자 및 환경에 따라 변형·마모되고 있다

는 판단, 사업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토지경계가 실제 사용 및 점유하고 있는 것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에 19%(2만2천필지)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군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기구를 선정해 최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지 경계조정으로 맹지해소에 따른 진입로 확보 및 토지형상의 조정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해 새로운 토지경계 설정에 나설 예정이다.

오한석 민원봉사과장은 “바른 땅 사업이 완료되면 디지털 지적을 토대로 공간정보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은 물론 주민에 재산권 보호와 다양한 경제 효과를 부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670-2151

# 양양해변 7월12일 개장 45일간 운영

우리군은 올 여름 무더위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추억과 낭만의 여름해변을 운영에 따른 지난 7월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해변개장 일정을 확정했다.

올 여름 양양해변은 시범해변인 낙산해변을 비롯해 설악, 하조대, 오산, 남해3리, 지경해변 등 일반 6개소, 물치, 정암, 동호, 기사문, 잔교, 동산, 죽도 등 마을해변 13개소 등 모두 19개소를 7월12일부터 8월26일까지 45일간 운영한다.

군은 7월12일 오전 10시30분 양양읍 조산리 동해신묘에서 양양향교 유도회 주관으로 여름해변 개방에 따른 용왕제를 병행한다. 설악해변과 하조대 해변에서도 마을회 등의 주관으로 여름해변 안전지원제를 올릴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다채로운 해변이벤트를 통해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여름특수가 가능하도록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낙산해변은 피서철 절정인 7월말~8월초 이벤트체험, 여름축제 공연 등 이전보다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하조대 해변에서는 '바캉스를 하조대 해변에서'라는 주제로 맨손조개잡이, 오징어잡이 체험행사를 열어 피서객에게 잊지 못할 여름추억을 선사한다.

또 정암해변의 조개잡이축제, 동호리 멸치후리기, 죽도해변의 2013 '여린 모래톱 축제', 인구해변 어울림축제, 남해3리 여름해변축제, 갯마을 '와! 여름해변이다' 축제, 원포리 한여름 축제, 지경리 여름해변 축제 등 소규모 마을해변에서도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특히 잔교리는 '38평화마을 여름해변 축제'라는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 피서객들에게 여름추억을 선사하며 지역을 알리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

군은 올해 여름해변도 각종 민원해소를 위해 주차장과 아영장, 파라솔 튜브 등에 대해 투명한 가격공시제를 시행하고 개인 파라솔 구역을 설정할 계획인 가운데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활동을 펼치며 피서객들의 만족도 높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여름해변의 원활한 운영과 상시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백사장의 해안침식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관현 문화관광과장은 "올 여름 양양해변이 새로운 모습으로 피서객들에게 최고의 만족도를 선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 양양군-서울 송파구 자매결연 체결

## 지역농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양양군이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서울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본격적인 교류활동에 들어가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는 정상철 양양군수와 박춘희 송파구청장 및 양 자치단체의 의회위원장, 의원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에 이어 송이밸리자연휴양림과 오산선사유적박물관, 낙산사 등을 둘러봤다.

서울 송파구와의 자매결연은 손양면에 소재한 굿앤굿 영농조합법인 신영섭 대표의 주선으로 상호간 자매결연 의사를 전달한 후 지난해 8월 송파구에 정상철 양양군수를 비롯한 실무진이 방문해 구체화됐다.

이후 지난해 한성백제문화제와 양양 송이축제에 각각 축하사절단이 방문한데 이어 지난해 말에는 송파구 김장 직거래장터에 우리군의 농산물이 참가하면서 협력적 교류관계가 급물살을 탄 뒤 이번에 전격적으로 자매결연을 체결하게 됐다.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68만2,405명)가 거주하고 있는데다, 가락시장과 고속도로와 인접한 동남권의 유통거점으로서 농수축특산물의 직거래는 물론, 행정, 문화, 체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연계협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 협정서에도 청소년 및 민간교류 활동 지원,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정보·편의 제공 등 4개항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을 명기해 실질적인 교류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에 송파구와의 자매결연으로 양양군의 자매결연 도시는 군포시에 이어 2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이외에도 서울 서초구, 성북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북 성주군 등 4개 지자체와도 결연을 위한 상호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국내 교류도시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상철 군수는 "서울 최대 지자체와의 도농간 교류를 통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감사실 평가통계담당 670-2105

# 제18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자 선정

김주혁(지역개발) · 김경식 · 서명섭(사회봉사) · 김재환(학술) · 김광태(체육)



김주혁 김경식 서명섭 김재환 김광태

제18회 양양군민문화상 수상자로 김주혁(지역개발)·김경식, 서명섭(사회봉사)·김재환(학술)·김광태(체육) 등 5명이 최종 선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6월21일 오전 10시 제35회 현산문화제 개막식장에서 열렸으며, 상패와 표창장이 수여됐다.

◆김주혁(지역개발)=다년간 지역에서 각종 지역현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체계적인 주민감사 역할을 해내며 동서

고속도로 양양IC 건설, 핵폐기장 설치 반대운동, 설악권 4개 시군 통합반대 투쟁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현재 양양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오색케이블카 유치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며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지원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경식(사회봉사)=홀로섬이 한마음 후원회 창립 멤버로 녹초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무상주택 지원 및 장학금 지원 등 소외계층에 헌신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오고 있다. 특히 양양연어사업소 과장을 맡아 바쁜 가운데서도 줄곧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한결같은 자원봉사로 모범이 되고 있으며 공부방 지원 등이들이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회원들 뒷받침하고 있다.

◆서명섭(사회봉사)=1996년도 대한적십자회 자원봉사자로 가입한 뒤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저소득층 일반구호활동, 독거노인 및 장애인 목욕봉사, 조손가정봉사 등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런 공로가 인정돼 지난 2012년 대한적십자사 총재로부터 포장증(1만시간 명예장 부문)을 수상하는 등 꾸준한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김재환(학술)=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며 양양군지 발간사업 집필 등 향토사의 맥을 잇는데 헌신해 오고 있다. 특히 '조선시대 양양부 소동라령의 고찰', '동해신묘의 역사적 고찰과 이해' 등 양양군의 정체성을 높이는 학술연구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양양의 누정대' 발간에 기여하는 등 지역학술의 발전에 남다른 기여를 한 점이 인정됐다.

◆김광태(체육)=2005년부터 서면 게이트볼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경기에 참가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으며, 2006년부터는 게이트볼연합회 서면분회장을 맡아 게이트볼 활성화를 통해 노인들의 활기찬 노년보내기에 기여하고 있다. 노인인구수 증가에 따라 이런 활동을 토대로 타 시군과의 교류활동은 물론 관내 대회 및 강원도대회에서 수차례 우승하는 등 게이트볼 저변확대에 나서고 있다.

# 농가도우미·홍보대사 역할 '톡톡'

## 생활개선회...농촌일손 돕기 미담

생활개선회양양군연합회(회장 김연화)가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도우미와 홍보대사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미담이 되고 있다.

생활개선회는 지난 5일 회원 20여명이 일손이 부족해 낙산배 열매숙기를 못하고 있는 양양읍 송암리 김시운 씨 농가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치며 일손을 거들어 고마

움을 샀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우리군이 주최하는 각종 축제나 현산문화제 등에 자원봉사에 나서는 한편 양양군의 특별한 먹거리 개발에 적극 참여하는 등 우리군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

김연화 회장은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데 생활개선회가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도심에 나타난 부엉이 새끼 2마리** 강현면 정암1길에 위치한 '썬라이즈 빌' 아파트 옥상에 어린 부엉이 2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화제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에 어미 부엉이가 어린 부엉이 2마리를 키우며 먹이를 물려다 주는 것을 한 주민들이 발견하고 생생한 모습을 앵글에 담아냈다.

제보 주민 썬라이즈빌 거주자 정장섭.

# “군민화합 · 지역발전 염원 한목소리”

## 제35회 현산문화제 성료...신구 조화로운 공존

제35회 현산문화제가 양양인의 끈은 성품과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며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향토축제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20일 고치물제와 성황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올해 현산문화제는 이날 군악대와 제등행렬, 영신농악행렬, 양주방어사 및 대포수군만호 행차, 신석기 가장행렬 등 전야제의 다양한 볼거리로 지역주민들의 흥을 북돋우며 막이 올랐다.

21일 개막식에 앞서 열린 양양기미만세운동 재현은 양양의 기상을 알리며 군민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해냈고, 양양군민문화상 시상, 축포, 조산초교 농악, 고적대 시범, 강

현초교 농악, 특공무술, 손양초교 농악, 화룡초교 줄넘기, 통일염원 풍선날리기 등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지역주민들에게 모처럼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개막식에 이어 열린 전통민속놀이에서는 남녀 궁도대회와 통배놀이, 청소년 국악사물놀이 경연대회, 그네뛰기, 읍면별 농악대회, 탁장사놀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예향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현산문화제의 하이라이트로 열린 군민노래자랑은 참가자들 모두가 그동안 같고 닮은 노래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민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산문화제 개막식에서는 우리군민

의 최대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시범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 지역발전의 공감대를 마련하며 주민들의 결속



을 다졌다.

올해 현산문화제는 전통과 현대의 신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채로운 행사로 그 어느 때보다 내실을 기한 향토축제로 승화됐으며, 우리군민 모두가 단단한 결속력을 통해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열기를 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670-2728

# “지역주민들 눈높이 맞춘 예술제”

## 제6회 양양종합예술제 성료...지역출신 예술가 공연 인기



년 백일장 및 미술 사생공모대회, 국악협회 정기공연, 연예협회 어르신 가요대회 등 다양한 장르에서 수준 높은 공연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미술협회 양양지부 회원전과 현산 청소년 콩쿠르,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 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등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한층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의미를 더했다.

올해 양양예술제의 종합예술제는 판소리 왕서은, 한국무용 최혜선, 전자바이올린 박은주 등 지역에서 배출한 젊은 예술가들이 대거 참가해 예향의 고장이라는 자긍심을 드높였으며, 지역주민들이 공연무대를 자주 찾아 문화·예술이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는 계기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다.

양양예술제가 주최한 제6회 종합예술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의 눈높이를 맞추는 계기를 마련하며 대다수의 막을 내렸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한 달간 열린 양양종합예술제는 지역출신 젊은 예술가 초청공연을 비롯해 청소년

# 사이클경기장 · 요트마리나 스포츠마케팅 견인

## 제48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지역경기 부양 효과

올해도 양양사이클경기장과 수산항 요트마리나가 강원도민체전 경기장으로 운영돼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기부양의 거점으로 제 역할을 해냈다.

우리군은 제48회 강원도민체전 사이클 경기를 지난 10~14일까지 양양사이클 경기장에서 개최했으며, 지난 11~13일까지는 수산항에서 전국요트대회가 열렸다.

지난 2012년 6월 19일 준공된 양양사이클경기장이 작년에 이어 강원도민체전 사이클부문 정식 경기장으로 사용된 가운데 손양면 수산항 요트마리나시설에서는 요트경기가 펼쳐졌다.

이번 사이클 대회는 고등부 남녀와 일

반부 남녀 등 트랙 8개 종목, 도로 2개 종목 등 10개 종목에 13개팀 161명의 선수가 참가해 양양사이클경기장과 양양시 내일원에서 힘찬 역주를 펼쳤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13일까지는 수산항 요트경기장에서 일반부 6종목(420, 470, 엔터프라이즈, 레이저, 레이저레디알, 윈드서핑)에 10개팀 92명 참가해 금빛 물살을 갈랐다.

군은 이에 따라 이번 도민체전을 앞두고 경기장 준비지원, 급수대 설치, 의료지원과 교통통제 및 안내, 실과소별 선수단 응원 등을 통해 원활히 대회가 진행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70-2731

###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 마-37. 잠 깬 아이 보며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우리 복태이(덩이)

뗏구나 뗏구나  
두 눈  
뗏구나

어여 어여(어서 어서)  
쑤욱 쑤욱  
쑤욱 쑤욱 — .

우리는 전통적으로 한 지붕 아래 3, 4대가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가장 복 받고 長壽하는 가정으로 그리고 그 속에 1) 글 읽는 소리 2) 베 짜는 소리 3) 아기 울음소리가 있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 귀여운 아기가 아프다면 할머니가 “어디보자.” 하며 아픈 곳을 찾아 몇 번이고 쓰다듬습니다.

금방 낫기라도 한 듯 아기의 칭얼거림이 ‘하하, 해해’ 가 울박 넘는情景...

지금, 핵가족시대라 하더라도 우리 襄陽人! 성숙된 모습 품격있는 장막 곱게 꾸미려는 美德 변함없으리라 믿습니다.

### 건강치아 18명 표창 선발

#### 우리군보건소 치아의 날 기념

우리군보건소(소장 이임순)는 지난 4일 월례조회에서 치아의 날을 기념한 건강치아 선발대회 입상자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건강치아 선발대회에서는 노인부문에선 전정자 등 6명, 학생부문에선 이준현 등 12명이 선발돼 표창을 수상했다.

▶문의 보건서 건강증진담당 670-2556



### 강원도여성지도자 양양서 워크숍

#### 여성단체협의회 지난 4일 코레일낙산연수원서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선남)는 지난 4일 오전 11시 코레일낙산연수원에서 정상철 군수, 김일수 의장, 최선남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함명희 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2일의 강원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가졌다.



###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우리군, 3억4,600만원 투입 지역특성 맞춤형

우리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하반기부터 3억4,600만원을 투입해 취약계층과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취업대상자 55여명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신선미마을전통식품 가공저장사업(지역특산물 상품화), 적은폐교 농촌생태체험장 조성사업(유휴공간 재활용), 양양언어 지역공동육성사업(문화관광명소 활성화),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4개 특화사업이다.

근무여건은 시간당 4,860원으로 교통·간식비와 주차 및 월차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된다. 1일 근로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28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 이내로 하고 읍면사무소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하반기에 추진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생산성과 효과성을 높여 안정된 일자리가 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 신재생에너지 수산양식시설에 적용

우리군, 강원수산양식에 지원 추진

우리군은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을 수산양식시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군은 일정한 수온유지로 효율적인 종묘생산을 위해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히트 펌프, 열교환기)을 수산양식시설에 적용, 수산종묘 생산업체의 연간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 절감 효과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인 히트펌프·열교환기시설을

해수 또는 담수를 직(간)접으로 이용하는 수산종묘생산 양식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수산양식(대표 최정기)에 지원한다.

농어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해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수산종묘 생산에 필요한 높은 연비로 일정한 수온유지가 가능해 에너지를 절감하면서 수산종묘 생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이다.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수산담당 670-2740

### 폐렴구균 예방접종 실시

우리군보건소, 65세 이상 노인 대상

우리군이 65세 이상 관내 노인들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폐렴구균으로 인한 균혈증 발생시 사망률이 높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침습성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오는 7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양양군보건소는 7,500만원을 투입해 우선접종대상자인 관내 75세 이상 2,535명에 대해 무료 접종을 하고 11월부터는 65세 이상 3,928명에 대해서도 접종에 나선다.

또 거동불편 사회복지시설 5개소 270명에 대해서는 7월 22일부터 31일까지 시설을 직접 방문해 의사의 진찰 후 예방접종에 나선다.

이번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은 4명으로 구성된 접종반이 폐렴예방접종 실시기준에 의거 접종하며 질병보건통합시스템 폐렴구균 예방접종 등록시스템을 통해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하는 등 안전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문의 보건소  
예방의약담당 670-2557

## 우리군 현안사업 관리개선 추진

직원들 대화창구 활용...새올시스템 연동

우리군이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점검 등 체계적인 관리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안사업 관리개선에 나선다.

군은 각종 현안사업 추진 시 사업 계획 단계부터 완료시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 그동안 대화창구가 없어 합리적인 대응이 미진했다고 보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 지속적 관리시스템을 보완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간부공무원 주요사업별로 사업장을 방문하고 토론회를 통해 문제점 해결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를 확대해 오는 9월에는 부서별 7-8급 중 1명씩 선발, 대화창구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자창구인 새올 시스템에 연동해 설치돼 있는 ‘용역관리시스템’에 ‘현안사업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개설, 모든 직원들이 열람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

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주 목요일 부근수 주재로 현안사업 심의회를 상설 운영하고 심의과제 우선순위에 따라 매주 1건씩 논의하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및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현안사업의 범위와 관리에 관한 사항, 현안사업 심의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심의결과 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과제로 하는 ‘현안사업 관리규정’을 조례로 제정해 시스템화한다는 계획이어서 모든 직원들이 현안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정의 모든 현안을 전 직원들이 공유하고 이를 통해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감사실 기획담당 670-2101

## 맑은 수돗물 품질공급서 발간

우리군, 체계적 관리에 취수원 수질도 좋아

우리군이 지속적인 맑은 물 공급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수돗물의 수질 및 생산과정 등이 자세하게 공개된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한다.

상수도사업소(소장 노원현)는 급수구역 및 시설 현황, 수돗물의 공급과정, 수도 관련 용어설명, 염소 처리에 관한 안전성, 정밀수질검사 결과, 정수장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 수돗물 상식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돗물 품질관리서를 발간, 이달 중 공공기관, 학교, 급수가구 등에 4천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상수도사업소가 복류수, 하천수(계곡수), 계곡수 등을 채수해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pH) 6.6~7.3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0.2~0.7mg/l △부유물질량(SS) 0.2~0.7mg/l 이하 △용존산소량(DO) 7.5~11.6mg/l 이상으로 상수원수 la(매우 좋음, 전 기준 1급수)로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소는 1일 2만2천톤의 수돗물을 94개 리 2만3,494명의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보급율 83.7%), 양양상수도의 취수원인 남대천의 연평균 수질도 좋아짐에 따라 맑은 물 공급사업의 효과



가 크다는 분석이다.

노원현 상수도사업소장은 “우리군의 상수도는 맑은 원수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체계적이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먹는 수돗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에 나서는 한편 남대천 등 취수원 보호를 위해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상수도사업소 상수도담당 670-2521

## 제대군인 귀농귀촌 현장교육 호응

우리군, 13~14일 40명 대상 프로그램 운영

우리군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제대군인들의 유치를 위해 지난 13~14일까지 마련한 현장교육이 큰 호응을 얻었다.

군은 이틀간 농업기술센터와 수동고을센터에서 제대군인 및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양양군의 기본현황 및 귀농귀촌 추진실적, 도시민 유치 전략, 타 시군과 차별되는 지원정책 등을 소개했다.

또 우리군의 핵심적인 소득아이템에 대해 실질적인 리더역할을 하는 영농인을 멘토로 선정해 비전을 제시했으며, 표고.허브.장류.과수.체험마을.펜션 등 선도분야 농업인 멘토와의 만남과 다양한 분야의 정착모델 제시를 비롯한 종합정보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이날 현장교육에 참여한 제대군인 및 가족

들은 수려한 자연풍광과 수도권과의 가까운 거리 등 입지여건이 좋다는 점에 관심을 나타내는 등 시종일관 진지하게 우리군의 귀농귀촌을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군은 도시민 유치지원센터를 개설하고 귀농귀촌 체험학교 등 도시민들이 안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이주 희망 제대군인들의 지역 이해력 향상과 지역정착의 계기로 발전시키고자 서울지방보훈처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와 함께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군이 수도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4촌(農山江漁村)이 있는 복합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이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담당 670-2336

## 양양 수산항 요트거점 역할 특독

제5회 협회장배 열려...지역경기 활성화 보탬



제5회 한국레이저요트협회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지난 14~16일까지 3일간 동해안의 요트미항인 양양 수산항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한국레이저요트협회(회장 김제섭)와 강원도요트협회(회장 김순교)가 공동 주최하고 양양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엘리트 선수 및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레이저 4.7, 레이저 레디얼, 레이저 스탠다드, 레이저 피코 등 4종목 9개부에서 150여명의 선수가 참여해 화려한 레이스를 펼쳤다.

수산항 요트마리나는 클럽하우스와 폰툰시설(2라인)을 설치해 60척의 요트를 계류할 수 있어 도내 최고최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 2009년부터 2회 연속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가 개최된데 이어 2011년에는 런던 올림픽 선발전을 겸한 요트협회장배

대회, 지난해부터는 레이저협회장배 대회가 매년 열리는 등 동해안 요트거점 역할을 해내고 있다.

군은 그동안 요트수리를 위한 정교장이 없어 불편하다는 이용객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억원을 들여 파워리프트를 포함한 시설을 보강했으며, 요트협회가 주관하는 요트학교가 상설 운영돼 주말 무료 강습회가 펼쳐지는 등 어린이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양레저 동호인들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부터 열린 제48회 도민체전에서도 사이클과 함께 요트경기의 공식경기장으로 지정되면서 많은 선수단이 찾아 매년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을 주는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8군단 장병들 농촌일손돕기

300여명 낙산배용춘복숭아 농가 찾아

최근 지역의 과수농가들이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8군단(군단장 중장 김유근) 장병들이 농촌 일손돕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장병들은 최근 기계화가 어려운 복숭아, 배 등 과수농가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8군단 예하부대 장병 300여명이 일손돕기에 나서 농가부담을 덜어

줬다.

이번에 실시한 농촌일손돕기는 간식 및 식사 등은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해 농가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 고마움을 사기도 했다.

서면 용천리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김연국 씨는 "일시적으로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과일숙기작업에 장병들의 도움으로 적기영농을 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고마워했다.

## 호국·보훈의 달! 한 사람의 신고정신이 국가 안보를 지켜냅니다

해군1함대에서는 '13. 6.21(금) ~ 6.30(일) 10일간 간첩과 안보 위해사범에 대한 신고 및 지수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우리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첩·테러범 등 안보상담/신고 전화

기무부대 : 1337 전군 주민 신고망 : 1661-1133  
국가정보원 : 111 경찰 : 112 해경 : 122  
해군제1함대사령부 : 033-539-4040

전군 주민 신고망(1661-1133) 전화시 신고자와 가장 가까운 초동조치 가능부대로 통화가 되며 신고접수와 동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전개 후 지원/조치 예정입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해군제1함대사령부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Q&A

최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SFTS)에 대해 해외에서의 정보를 참고로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대국민 홍보용

1.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2011년 중국에서 처음 확인된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주요 증상은 심한 고열 및 소화기 증상이며 중증화되어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SFTS)은 다른 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중국에서는 '11-12 2년간 총 2047건 (129례 사망, 치명률 약 6%) 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13년 1월 최초 발견 이후 현재 15건 (8명 사망)이 보고되었습니다.

3. SFTS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주로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감염이 됩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국립보건연구원의 전국 진드기 채집 조사에 따르면 실제 SFTS 감염률은 0.5% 이하로 나타나서, 진드기 100마리 기준으로 1마리 이하에서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물린다고 해도 당시 바이러스의 양이라든가, 개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감염 확률은 더욱더 낮아지기 때문에, 내가 진드기에 물렸다고 해서 SFTS 에 걸린다, 라고 괜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38-40도를 넘는 고열, 소화기증상(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입니다. 그 외에 두통, 근육통, 림프절종창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등지의 림프절이 크게 부어오르는 등) 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더 진행이 되면 신경계 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이나 체내의 여러장기의 손상이 발생하는 다발성 장기부전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5. 진드기는 실내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진드기와 다른가요?

SFTS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작은소참진드기는 일반적으로 집에 서식하는 집먼지진드기와는 종류가 다릅니다. 작은소참진드기는 주로 숲과 초원 등의 야외에 서식하고 있으며, 시가지 주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주로 수풀이 우거진 곳이나 산의 풀숲에 서식합니다.

6. 이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한 5~8월에 특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야외활동을 할 때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신발을 착용하여 피부의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드기의 대부분은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흡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무리하게 당기거나 진드기의 일부가 피부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진드기에 물린 것을 확인하였다면 핀셋 등을 이용하여 진드기를 제거하도록 합니다. 또한 진드기에 물린 후, 심한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진드기 제거법]

물린 상태에 있는 진드기는 핀셋을 이용하여 비틀거나 회전하여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천천히 제거합니다.



8. 인간 이외의 동물도 이 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진드기는 야외에서 인간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동물을 흡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SFTS 발생지역에서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발병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역병 지원입영 롤-모델 수기 공모전

○ 공모기간 : '13. 6. 3(월) ~ 7. 31.(수)

○ 응모대상 및 주제

본인이 소지한 자격·면허 또는 전공분야의 특기를 살려 지원 입영하고 군 복무를 마친 사람 중

- 해당 군 복무 특기와 관련이 있는 분야 취업에 성공한 사례
- 해당 군 복무 특기가 학업을 계속할 때 도움이 된 사례

○ 원고 작성 및 제출

분량 : A4용지 3매(글자크기 13P,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제출 - e-Mail : ossy5@korea.kr

- 우 편 :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705 강원영동병무지청 고객지원계

※ 제목, 성명, 연락처(e-Mail, 전화번호)를 표지에 기재

○ 시상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각 50만원, 장려(30명) 각 5만원

문의 : 강원영동병무지청 고객지원계 033-649-4256

## 와우! 이젠 해외에서도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우리 국민의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2013. 5. 1(수)

■ 시범실시 공관 (총15개)

- 아시아(4) : 주뉴질랜드(대), 주말레이시아(대), 주우즈벡(대), 주피지(대)
- 유럽(3) : 주독일(대), 주스페인(대), 주핀란드(대)
- 아중동(5) : 주남아공(대), 주르완다(대), 주이스라엘(대), 주이란(대), 주UAE(대)
- 미주(3) : 주과테말라(대), 주도미니카(대), 주페루(대)

※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년 말까지 71개 국가로 확대 추진 예정

■ 주요내용

- 분실 등 재발급을 신청하는 모든 운전면허 소지자 및 갱신기간 중인 제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재외국민(독일 등 15개 국가)

 도로교통공단  
강릉운전면허시험장

## 2013학년도 2학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평생학습시대를 선도하는 열린대학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3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학과(22개학과)

-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1,2학년),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일본학과

-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행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미디어영상학과, 관광학과

- 자연과학대학

농학과, 가정학과(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상학 전공), 컴퓨터과학과, 정보통계학과, 환경보건학과, 간호학과(3학년)

-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1학년), 청소년교육과(1학년), 유아교육과(1,3학년), 문화교양학과

○ 접수 기간

- 인터넷 접수 : 신·편입생 : 2013. 6. 24(월) ~ 2013. 7. 17(수)

○ 전형 원칙 : 출신 학교 성적 순으로 선발

○ 합격자 발표 : 2013. 8. 7(수)

○ 대표 전화 : 1577-2853(입학오삼)

☞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 홈페이지(www.knou.ac.kr)를 참고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원지역대학

200-954 강원도 춘천시 방송길51(호자동 591-3)

☎ (033) 240-6613 (http://www.knou.ac.kr)

##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가입안내

■ 목적 : 건강보험 미신고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

■ 강조기간 운영

○ 기간 : 2013. 6.1 ~ 6. 30(6월말까지 자진신고)

■ 가입대상

- 사업장 : 근로자(법인의 이사를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근로자 : 상용근로자, 1월이상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  
☞ 장기요양기관의 상근근로자(관리책임자 등) 및 요양보호사 등이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직장가입 취득대상임

■ 사업장 가입(취득일)

- 사업장 :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
- 근로자 : 사업장에 사용(고용)된 날

■ 신고방법

- 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하여 신고함 [문의 전화: 1577-1000]

■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금),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기분

햇살향을 가득 실은 바람에 여름이 묻어나는 계절이다. 청량하고 맑은 날씨엔 피로도 금세 풀릴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가볍다. 그런가하면,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려고 하면 쉽게 피로하고 온몸이 쭈시기도 한다. 이렇게 날씨는 사람들의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흐린 날씨에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해지는 원인을 어느 학자는 공기 중의 '이온'으로 설명하고 있다. 흐리고 비가 오는 저기압에서는 산소가 포함된 음이온보다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양이온이 더 늘어나는데, 양이온에서 방출되는 '세로토닌(serotonin)'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게 하거나 화를 불러일으키며, 심지어는 심장 발작과 편두통, 류머티즘 통증을 유발시킨다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사람들은 흐리거나 비가 오려고 할 때 쉽게 피로를 느끼며 짜증스럽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

다. 미국의 어느 과학자는 동료가 어떤 때는 일을 기분 좋게 거뜰히 하는데, 어떤 때는 같은 일을 해도 짜증만 내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연구실의 대기 상태를 조사해 봤다.

그 결과, 정전기 발생기에서 음이온이 많이 나왔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양이온이 많이 나올 경우는 우울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음이온의 흐름 속에서 여러 검사를 한 결과, 시각 반응과 호흡 기능이 좋아지고 피로를 적게 느꼈다고 한다. 대기 중 음이온의 증가와 감소는 기상의 변화로 나타난다.

날씨에 따라 감정의 폭이 쉽게 변하는 건 인간은 그저 자연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여름철 장마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예방해야겠지만, 무더위로 짜증나기 쉬운 계절 마음속 정원에 향기를 심어 심신의 안정을 취해보자.

속초기상대장 이광주

##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하며,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구.소방공동시설세)를 1장의 고지서에 함께 고지합니다.

■ 과세표준액 및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60%	1/1,000~1/1,000
주택 외 건축물	시가표준액×70% (시가표준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각종지수)	2.5/1,000~40/1,000
선박 항공기	시가표준액	3/1,000
토지	개별공시지가×70%	0.7/1,000~40/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제외),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과세표준에 1.4/1,0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와 함께 부과합니다.

■ 부과시기 및 납기

○ 주택분, 주택 이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납기 : 7.16. ~ 7.31.)

주택분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2은 7월에, 나머지 1/2은 9월에 부과합니다.

○ 주택분(10만원 초과시 나머지 1/2), 토지분 : 매년 9월(납기 : 9.16. ~ 9.30.)

■ 납부방법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터넷으로 전국의 지방세를 어디서든 지방세를 신고·납부·조회할 수 있는 지방세 종합서비스 누리집입니다.(이용시간 : 07:00~22:00)

○ 현금입출금기(CD/ATM)

▪ 고지서 없이도 통장 및 국내 발행 모든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납세자의 카드나 통장이 아닌 경우)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나 납세자의 간편납부번호(15자리)를 입력 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창구 납부

▪ 현금입출금기의 사용이 어려운 분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군청 세무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 납세자 본인 및 대리인(위임장 지참)이 민원실 창구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부과부서) ☎ 033-670-2107, 2148

지방세는 우리지역의 주민 복리와 공공 서비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꼭,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